

오직 믿음부터 영원한 복음까지 성취한 로마서의 제자들

-복음으로 여는 로마서-

하박국 2:4, 로마서 1:17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 가지 문제, 12 가지 문제 오만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단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사실적으로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교단을 너무 축복해주셔서 비대면인데도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믿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하며 발버둥 치는 것이다. 로마서가 바로 이런 내용이다. 로마서 1장 17 절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면서도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말씀은 성경 전체 요한복음 3장 16 절이었지만 구원론,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로마서 1장 17 절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 절의 앞부분의 말씀과 함께 보는 것이 이해가 쉽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이다.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대주제인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선행으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로마서에는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은 모든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다. 자기의 윤리, 도덕적으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피조물로써는 인간의 죄를 절대로 대속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란다. 로마서 1장 17 절 앞부분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분간이 된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도 치신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모든 영적인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날마다 24 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한다.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려면,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

장 어려운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로마서 주석을 썼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여 오히려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로마서의 이해를 어렵게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마서의 1차 수신자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2차 수신자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특히 종교인들과 철학자나 도덕주의자들이다. 법과 윤리와 도덕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인간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다 지키려고 해도 그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신분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신분을 바꾸는 방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로마서는 이러한 구원론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변론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서는 단순히 신학적인 책만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실천신학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즉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자의 삶에 대한 절대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목표는 로마서 16 장의 인물들과 같은 역할을 교회와 삶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첫 번째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로마서의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단어들은 율법과 믿음과 복음이다.

(1) 첫 번째 단어는 율법이다. 율법에는 변화된 율법, 없어진 율법, 승화된 율법이 있다. 변화된 율법은 제사이다.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없어진 율법은 할례이며, 승화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승화되었다. 복음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율법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율법이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총 613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구약시대의 신앙제도인 제사제도와 절기들에 대한 규례이다. 복음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주의란,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킬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사상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 왔음에도 율법, 율법주의, 믿음, 복음적인 삶에 대하여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해방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의 주장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과는 달리 축복의 믿음이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대로 우리는 행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볼 뿐이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거듭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왜 용서하고 양보하고 참는지 알려줘야 한다. 로마서 1장 17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믿음이다. 이 복음이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최고

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 뉴스(Good News), 즉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그리스도 자신을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구원해주시겠다는 것이다.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중에는 전혀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불신자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장에 로마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 로마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들이 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유대인 출신들은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레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였던 것이다.

(3) 세 번째로 이해해야 할 단어는 복음과 복음화라는 단어이다.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 복음화되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 복음이란 구원이요 구원의 길이지만 복음화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로마서 16장에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히 거둔 삶 살고 있는 모델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2.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 권하고 있는 완전복음과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믿음과 구원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권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9가지 포인트와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본문의 중요한 요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1)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교회 24이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 수준, 표준을 세상중심이 아니고 말씀중심으로 세우고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이것이 현장 24이다. 다음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음은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2) 이어서 권세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과 관련하여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다. 로마서 13장 7절을 보겠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3) 다음으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다. 여기서는 단정히 행하고 세상적인 일이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삶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세계를 살릴 수 있다.

(4)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에서는 정확한 믿음의 비밀과 복음을 알고 완전히 거둔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역할과 이름과 별명이 나오고 있다. 이분들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실천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 그분들의 이름과 별명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고 자 한다. 1절에 보되는 바울 사도가 나의 보호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3절과 4절에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동역자로, 5절의 에베네도와 8절의 암블리아는 사랑하는 자로, 6절의 마리아와 12절의 버시는 많이 수고한 자로, 7절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친척으로, 10절의 아벨라는 인정 받은 자로, 23절의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의 돌보는 자', 즉 식주인의 역할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들과 램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붙잡을 언약은 오직 믿음과 완전 복음이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오직 복음을 이해하고 완전 복음을 위해 전도자의 삶에 도전한 절대제자들이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그 은혜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한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잘못된 종교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먼저 참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오직 참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학업, 미래와 오직 복음과는 관계없어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이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현장의 문제를 두고 조금만 집중해도 로마서와 같은 작품을 만들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오직 믿음을 정리하고, 내가 실천해야 할 말씀들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시기를 바란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완전복음의 체질을 위해 도전하다가 영원한 전도시스템을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복음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기록한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 번 짧은 시간이지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최고의 석학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를 알려고 연구했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복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셔서 쉽게 이 복음의 길, 언약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